

저성장 고착화 계속...광주 부동산 경기 회복 불투명

광주경총,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초청 '트럼프 2.0 시대 전망' 강연 미국 우선주의로 강달러 유지...금 등 안전자산 일시 급락 가능성

"2024년 중반까지 상승했던 금리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을 피벗(pivot)의 시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현재 높은 환율로 인해 쉽게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지난 22일 광주경제인총협회(이하 광주경총) 제1669회 금요조찬포럼을 찾아 '트럼프 2.0, 2025년 경제전망: 경제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금을 '피벗의 시대'로 정의한 뒤 중심축이 바뀌는 상황, 금리의 변화가 보이는 시기에 어떠한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각자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전 이미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선행 효과라고 진단했다. 집권 후에는 오히려 달러 가격은 1250~1350원대

를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격 역시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하게 된다면 달러, 금 등 안전자산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아마도 저성장이 고착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경제 여건, 잘못된 경제 정보 등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경제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오랜 '저성장 고착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도 피는 꽃은 있다"며 "인도가 경제성장률을 계속 경신하

고 있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0'에 대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우주,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을 미국에만 두겠다는 의미"라며 "일론 머스크를 정부호 울위원회에 앉혀서 예산과 규제를 통제하고, 기후 변화대응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외에도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절감, 금리 인하, 관세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트럼프는 이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종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가까이 하고 결국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대만의 TSMC의 핵심 인재와 기술력을 미국이 흡수하게 한 뒤 대만 땅을 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엄청난 긴장감이 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총은 이날 강연에 앞서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찬 광주경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대학교와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글·사진=윤현석 기자 chadol@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2일 광주경제인총협회(이하 광주경총) 제1669회 금요조찬포럼에서 '트럼프 2.0, 2025년 경제전망: 경제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은행 '광주 Wa뱅크 우Wa한 영상 공모전' 시상식

대상·최우수상 등 13팀 수상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4 광주 Wa뱅크 우Wa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 Wa뱅크는 광주은행 앱으로, 고객들이 늘라운 बैं킹 서비스에 감탄하는 '와'라는 의성어와 더불어 고객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광주은행으로 오라'는 '와'의 의미를 담아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같은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고객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주 Wa뱅크 브랜드 또는 광주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광주은행은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 외부 전문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1팀(20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10팀(각 30만원) 등 총 13팀이 수상했다.

대상은 'Wa बैं크의 신박한 6M 기능을 소개할 계와!' 팀이 수상했다. Wa बैं크의 W를 뒤집은 M을 부각시키는 등 '뒤집다'라는 테마를 정확한 단



어로 서비스에 접목해 앱 기능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광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이번 공

모전은 광주 Wa뱅크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고객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기아 '미국 내 엔지니어를 위한 최고 기업'

포브스 선정...국내 기업 중 1위

기아가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내 엔지니어를 위한 최고 기업' 중 국내 기업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는 최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와 함께 한 조사를 토대로 엔지니어를 위한 최고 기업 상위 175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에서 직원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현직 엔지니어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과 복리후생 수준, 전문 역량 개발 기회, 근무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포브스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 엔지니어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전기공학, 로봇공학 등 첨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상위 175곳 중 국내 기업은 기아(53위), LG전자(64위), 삼성전자(71위) 등 3곳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소니가 차지했다. 이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 항공우주국(NASA)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쉐린 그룹과 미국 최대 송전망 건설사인 번스 앤 매도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프트웨어 기업 인튜잇(Intuit), 에너지 인프라 기업 셉트라 등도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기업 인텔은 14위,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는 20위를 각각 차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직류산업특구 참여 기업 5곳 늘어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전남의 직류산업글로벌혁신규제특구(이하 직류산업특구)의 참여 기업이 5곳 늘어나면서 사업자가 변경됐다. 전남의 직류산업특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나주 일원 12.1km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중앙직류(MVDC) 스테이션을 활용해 전력기저차 실증-인증을 통해 기술 개발과 표준을 만들어 직류산업 세계 시장을 선점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지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경북 산업융합·부산 블록체인·울산 계층서비스·전북 탄소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또 울산 계층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 중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가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울서 콘텐츠 기업 유치 활동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원미디어 극장에서 '호남 콘텐츠 투자 유치(IR, Investor Relations)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JCEP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남권 유망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IR 고도화 및 작·간접 투자 연계 지원 등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전남의 뮤직몬스터, 사인어스, 와이그림, (주)엑스플랜트, 로컬업 등 5개 업체, 전북의 아사, 주미당, 액티부키 등 3개 업체 등이 참석해 투자 유치를 위한 IR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후에는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I 자동서명 제작 플랫폼 개발 기업인 ㈜사인어스는 ㈜아이디어파트너스와 음악제작 및 저작권관리 플랫폼 개발 기업인 ㈜뮤직몬스터는 인트윈벤처스와 투자희망서를 제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 제공과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확장 등 기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콘텐츠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4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1	24	26	27	37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323,422,079	8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388,307	83
3	5개 숫자일치					1,235,014	3,588
4	4개 숫자일치					50,000	173,036
5	3개 숫자일치					5,000	2,750,379

패션·추위 동시 공략 광주신세계 방한슈즈 최대 70% 할인 판매

광주신세계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패션과 방한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방한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패딩부츠 등 다양한 방한화를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플레이 스카트에 입점한 '헌터'에서는 겨울철 레인부츠와 방한슈즈 등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인아웃 퍼퍼 니트 컷 부츠'는 패딩소재의 디자인에 니트 소재로 제작돼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무게감이 장점이다. 해당 제품은 짧은 발목 형태의 부츠부터 롱부츠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갖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슈즈 전문 편집 매장인 '세이브 힐즈'에서는 '브러드스톤'의 '헬시부츠'의 인기가 높다. 헬시부츠는 두툼한 가죽 소재로 제작돼 튼튼한 내구성과 방수 능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처럼 다양한 겨울철 방한슈즈



를 선보이고, 오는 12월 1일까지 지하 1층 이븐트홀에서 '바이네르', '미소페', '텐다', '락포트' 등 슈즈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특집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방한슈즈를 기존 대비 30~7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바이네르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온열

패지를 선착순 증정하고, 미소페는 15만원 이상 구매 시 왁스를 증정한다.

이밖에도 오는 12월 1일까지 분관 3층 '스타카토' 본 매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 헬시부츠 등 슈즈를 대상으로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현대경제연구소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지속"

"향후 2~3년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시장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4일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수도권 호조로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0.18% 오르며 5개월 연

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엇갈렸다.

서울(2.6%)과 경기(0.2%), 인천(0.6%)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 등 지방권은 하락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

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보험 국면"이라며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 유형의 입주 물량 공급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